| 현불 논단 |

가짜뉴스,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근 정부 '가짜뉴스 경계론' 제기
엄정 대처 · 법적 규제 필요성 거론
가짜뉴스, '통제' 발상은 타당한가

민주주의, 자유로운 공론 통해 발전
법적 규제는 언론 자유 침해 우려
가짜뉴스, 미디어 변화 따른 부산물
허위정보 차단 중요… 기준 마련해야

법적 규제 보다 성숙한 시민 양성을
'미디어 리터리시' 정책 중심에 서야

정부가 최근 들어 부쩍 가짜뉴스 경계론을 제기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엄정 대처를 선언한 데 이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경제이슈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가짜뉴스 대책 마련 지침에 이견이 있었던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추측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며,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법으로 방지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소위 뉴스의 홍수시대에 충분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인가?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론이 통제와 처벌로 현실화 된다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의혹 제기를 허용하는 공론장의 존재와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후 규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전규제의 의미를 갖게 될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공론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공론장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 제정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칠 수 없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다른 방안은 없는가?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이다. 신문과 방송 매체로 국한되었던 뉴스 미디어가 인터넷의 등장으로 엄청나게 증가함으로써 뉴스 채널과 뉴스의 총량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형 언론사의 전유물이었던 뉴스 생산이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개인으로까지 가능해졌고, 뉴스 유통은 포털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적이고 무제한적인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하는 것을 떠나서 뉴스와 비뉴스를 구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정보 공급의 홍수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게다가 기존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저하까지 이어져 뉴스 수용자들은 인터넷미디어와 같은 대안 뉴스미디어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가짜뉴스는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정보를 의미한다. 허위정보의 확산을 우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허위정보를 가리는 데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정 권력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법적 규제를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은 근시안적이고 위험하다. 법적 규제를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내겠다는 성급하고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 대안 모색에 정부 정책수립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확증편향과 집단적 배타의식이 증폭되고 있는 사회, 여론 양극화로 증오와 갈등이 확산되는 사회 현상의 원인을 먼저 진지하게 진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사고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행동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반드시 정책 수립의 중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극단적 대결 양상의 사회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한 정부 · 언론 · 사회적 기구에 대한 불신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가짜뉴스 규제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언론 재갈 물리기나 다른 의견에 대한 제약이라는 의구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귀결될 것이다.

社 說

일본에 '진정한 참회' 요구한다

한일 관계는 유례없는 갈등 상황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에서는 연일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의 혐한 분위기가 보도되고 있다.

불교계도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형성된 '노 재팬(No Japan)'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 사찰에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불매운동에 힘을 보태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추세다.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아베정부를 규탄했다.

종단 차원에서는 강경 대응보다는 교류를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8월 13일 발표한 교시를 통해 종단에 한중일 3국 불교협의회를 통한 교류를, 정치인들에게는 중도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와 더불어 전국 사찰에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현수막 게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갈등 상황은 아베정부가 야기한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배상 문제이다. 강제 징용자 개인과 기업의 보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이는 역대 일본 정부들도 인지 ·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런 보편적 상식이 뒤집힌 것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강제징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참회와 사과였다. 이치노헤 쇼고 스님은 본지 인터뷰에서 "일본은 정말 한국의 입장에서 반성했는가"라고 반문한다. 한 세기에 달하는 한일 양국의 갈등은 가해 국가의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탄자니아 넘어 세계에 韓불교 알리자

조계종이 첫 아프리카 포교 차원에서 건립한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대학이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9월 6일 57명의 학생들이 3년간의 원예 농업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계종의 농업대학 설립은 첫 시도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농업국가이면서 변변치 않은 농업기술로 빈민계층이 많은 탄자니아에 부처님의 자비를 펼친다는 의미와 실질적으로 불교에 관심이 있는 탄자니아 주민들을 불자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2017년 10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수계를 받고 불자로서의 삶을 다짐했고, 탄자니아 학교 내에서도 연등만들기, 만다라 전시전 관람 등 다양한 불교문화 수업으로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세계화에 집중해 왔지만 사실 미주포교, 유럽포교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범주는 어디에서든 가능하다는 자신감이다.

기독교 선교단체들의 경우 이슬람국가, 혹은 불교국가에서도 선교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불교는 포교 전법에 있어 기독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대학 사례를 계기로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세계로 나아갈 때가 됐다. 탄자니아 외 아프리카에서, 또 불교 볼모지였던 남미, 북유럽 등지로 시각을 넓혀나가자. 부처님께서는 전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다. '자!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이제 한국불교가 탄자니아를 넘어 세계 속에 한국불교, 그리고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할 때가 왔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착한 미생물 EM과 함께 해요

얼마 전, 초등 5학년인 아들은 압력솥으로 밥 짓기에 도전했다. 쌀을 씻고 밥물을 맞추고 불 조절을 해가며 뜸을 들이는 밥 짓는 과정에서 우리 집의 경우 하나가 더해진다. 그것은 쌀뜨물을 받아 EM발효액을 만드는 것이다. 쌀을 씻을 때 첫 물과 두 번째 쌀뜨물을 패트병 두 개에 나눠 받은 후 EM 원액을 넣고 설탕과 소금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다. 발효액이 완성되면 청소, 화초 가꾸기, 과일, 야채 씻기, 도마, 행주 살균,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구 냄새 제거 등의 용도로 널리 쓰인다.

아들의 첫 밥하기는 매우 성공적이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슬고슬한 밥을 해냈다. EM발효액도 잘 만들어져 평소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각별한 아들에게 밥 짓기의 즐거움은 배가 되었다.

쌀뜨물로 EM발효액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쌀뜨물을 그대로 흘려보낼 경우 과영양화를 일으켜 하천 오염을 일으킨다는 다큐멘터리를 본 이후였다. 오염의 주원인이었던 쌀뜨물이 EM 발효액을 만들어지면 오히려 오염된 하천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EM 발효액 만들기는 우리 집 환경 실천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이라는 단어의 첫머리 글자로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이다. EM 속에는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등 약 80여 종의 미생물들이 들어 있다. EM은 농업에 주로 사용되어 저장성 향상, 생산성 증대, 토양의 질적 개선 등에서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점차로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그 효능을 발휘하기 시작해 악취 제거, 수질 정화, 하수구 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 방지, 남은 음식물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다양한 EM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나는 세수 비누, 주방용 세제, 치약, 빨래 비누 등을 모두 EM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EM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범위가 무한해 보인다. 애완용 동물 냄새 제거는 물론 아토피 피부염 완화, 무좀 치료를 비롯해 악취 제거와 살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파트 한 동에서 세 가구만 EM을 사용해도 하수구 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더 이상 EM 발효액 사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며칠 전, 아들은 베란다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다. 아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예덕나무 잎사귀에 하얗게 생긴 벌레들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EM 발효액에 물을 더한 희석액을 뿌려주고 희석액으로 잎을 닦아주느라 분주했다. 나무들로 가득한 우리 집 베란다에 생기는 병충해의 경우 독한 살충제를 뿌리는 대신 EM 발효액을 사용해 대부분 해결해 왔다. 흙을 살아나게 한다는 EM액 덕인지 베란다에서 심심찮게 지렁이도 보인다. 우리집 베란다에서 입증되고 있는 EM 발효액의 효능을 실감하며 '착한 미생물 EM'과 함께 하면 나도 지구에 착하고 유용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어 본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앰프 다루기 1초의 아주 간편한 견본으로!

불시에 사찰을 방문하면 대부분 스님들은 아! 우리 법당소리 아직 쓸만해요! 거절! … 그래도 스님! 여기까지 왔으니 소리 구경이라도 … 하며 법당에서 소리비교를 하면 장난감 수준의 차이 앞에 스님은 귀를 의심하며 아니! 이렇게 큰 차이가? 하며 난감해 하실 때 스님! 시설비는 장기할부… 아니면 초파일 지나서 하며… 가장 많은 시설을 합니다.

▣ 비싼 시설 마시고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일천이 이천시설 소리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 사찰 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부터 ~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명품소리훈련원 원장)

육임 수강생 모집

지금까지의 육임과 다른
새로운 육임을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학기 수강생 모집
교재 e-book
문의 02)3668-9890, 9871
수강료 50만원
www.dongbang.ac.kr

특별 이벤트
공념학당 6개월 수강 + e-book (30만원) + 동방대학 수강
일백만원 (대할인 수강생 모집 중)

공념학당 | Tel 02-793-7333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